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남 순 현[†]

호남대학교 교육학과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두 남녀가 만나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원가족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혼 부부 188쌍의 회고적인 내용을 토대로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의 원가족의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연구가설모형은 지지되었다. 신혼 부부들은 결혼 전 부모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결혼 당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데 있어서 불안감을 덜 느꼈고, 이러한 불안감은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편 결혼 당시 지각되었던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혼 부부들의 노력은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또한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켰다. 즉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결혼 전과 후에 성인 자녀에게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한 개인의 발달과 가족 생활주기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간의 심리과정에 대한 변화추이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종단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부부 친밀감, 심리적 독립, 정서적 건강, 가족의 건강성, 정체감 위기

* 이 논문은 2001년도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 Post-Doc.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 순 현 / 호남대학교 교육학과 /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FAX : 062-940-5891 / E-mail : soonhyeon@honam.ac.kr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원화된 많은 사회현상들은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산업화·도시화되어 가면서 일찍이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탁아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구제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의 해체는 증폭되었다. 이러한 가족문제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사회의 건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구성원들간의 관계적 기능에 대한 욕구는 가족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왔으며,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강구해 오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족건강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실증적 조사와 더불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족이다(서병숙, 1994; 유영주, 1995 재인용). 이러한 건강한 가족의 시작은 성인 남녀의 건전한 결합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두 남녀가 만나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전 원가족이 성인 자녀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

결혼 전 성인기 자녀의 원가족(family of origin)¹⁾

1)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신체적·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시작한 가족으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가족으로 정의되며 (Hovestadt, Anderson, Pierly, Cochran, & Fine, 1985),

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emotional health of the family-of-origin)은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형성의 시발점이 된다.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수준이 성인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어 온 바 있다(Anderson과 Sabatelli, 1990, 1992; Bowen, 1978; Framo, 1976; Hovestadt, Anderson, Pierly, Cochran, & Fine, 1985). 원가족으로부터 강요되는 정서적 힘(emotional forces), 즉 융합, 이탈, 삼각화 등은 성인 자녀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기능을 초래한다.

개인의 생애주기과정에서 성인기는 확고한 자기정의(self-definition)를 토대로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한 성인 남녀는 사랑이라는 덕성을 쌓게 된다(Erikson, 1963). 사랑이라는 덕성을 완성하려는 하나의 시도는 결혼이다. 결혼은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 다양한 가치관 및 경제적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두 남녀의 정서적·법적 관계이다(Olson & DeFrain, 1994; 유영주, 1995 재인용). 그러므로 개인의 발달에서 성인기에 있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인기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생활주기에서 주요 발달과제는 젊은 세대의 자립이다. 즉 가족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자녀와 부모간의 성숙한 성인으로서 맺는 관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Carter와 McGoldrick(1980)은 일반체계이론의 입장에서 가족생활주기에 어떤 가족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젊은 성인(young adult)의 단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족생활주기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는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과 앞으로 자신이 만들

국내에서는 출생가족, 근원가족, 원가족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어 갈 가족 사이의 중간을 가족생활주기의 첫 단계로 봄으로서, 건강한 성인 남녀의 결합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족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정서적 결합을 가족 외의 사람들과 더 많이 갖게 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보편적인 형태는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기본적인 발달 과업은 부모와 자녀의 끈을 단절하지 않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의 자립은 대부분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혼란을 초래한다. 심리, 사회, 경제적으로 성숙한 성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가족(family of procreation, 생식가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가족의 부모는 정서적 압력을 가하게 된다. 원가족의 부모는 가족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서툴며, 성인 자녀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에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게 된다. 성인 자녀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낸다.

이때 분리에서 야기되는 상실감이 동반된다. 부모는 자신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녀가 가족을 떠남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소위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한다(김유숙, 2000). 따라서 원가족의 부모가 자녀 출가 후 부부하위체계를 새롭게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새롭게 가족을 형성한 성인 자녀들에게 기존의 부모의 역할을 보다 더 강요하게 되고, 자립한 자녀에게 이전의 자녀 역할을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립한 성인 자녀들도 신혼초기 배우자와의 관계형성에 실패할 때, 부부간의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적으로 원가족의 부모에게로 되돌아가 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가 큰 장애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순조롭게 발달해 가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성인 자녀의 자립에 상당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는 부모와 성인 자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계속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각자의 생활이나 일에 있어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과 성인기 부모로부터의 독립간의 관계

평생발달에서 한 개인의 발달은 출생직후 혹은 태내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개인의 중요한 성장은 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Erikson 발달이론 중의 하나의 특징은 점성설(epigenesis)²⁾이다(Erikson, 1963). 이러한 관점에서 한 개인의 발달을 살펴보자면, 성인기 자녀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때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그 개인의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독립된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탯줄을 끊어야 한다. 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립할 때까지 오랜 기간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기 자녀가 이런

2)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단계이론을 점성설이라고 하는데, 점성설(epigenesis)이란 용어는 epi(upon)와 genesis(emergence)의 합성어로 특정 단계의 발달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른 단계의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보호, 특히 어머니와의 심리적 유대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체로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간에 많은 심리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아정체감(ego-identity)³⁾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대학입시라는 중압감으로 인하여 심리사회적 유예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을 갖는 경향이 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대개 이러한 실험 기간은 허용되며, 이 시기 청소년들은 성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이 시기는 자기탐색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입시경쟁, 어두운 장래전망 및 가치관과 이념적 혼란에서 야기된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이나 정체감 혼란(identity confusion)의 시기이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겪는 이러한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연한 것이다. 이는 우리 문화권이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이 남과 다른 나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심리적 유예기간 속으로 숨어버린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자연스럽게 지연·유보되고, 성인기 결혼이라는 발달과제에 직면하여 부모로부터의 분리라는 '제 2의 정체감 위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기 자녀가 결혼 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있어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건강(예, 개별화, 가족분화수준⁴⁾ 등)은 자녀의 정서적 건

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있어서 성인 자녀와 부모간의 친밀감과 자율성의 적절한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혼 후 원가족이 신혼 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현대 가족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지속성있는 전인격적인 관계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만족할 때,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중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른 가족관계 연구에 비해 많은 관심을 끌어난 이유이다. 실제 부부관계의 정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학자들(Greenberg & Johnson, 1986; Magolin & Weinstein, 1983)은 부부간의 심리적 상호기제를 밝히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부부간에 필요로 하는 정서는 부부간 친밀감 획득이라고 밝혔다(Hatfield, 1984; Pattern & Waring, 1984; 김경희, 1995 재인용).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혼은 과거의 제도적 결혼에서 우애적 결혼으로 변천해왔고, 그에 따라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도 역할이나 권력보다는 만족감, 애정, 적응, 조화와 같은 개념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30년대에서부터 일찍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권정혜, 채규만, 1999). 결혼만족도가

3) 자아정체감(ego-identity) 형성이란 부모에게 의존하던 어린 아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과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Erikson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자아정체감이 발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자기를 자각하는 동시에 자기 일관성 혹은 자기 전체감(feeling of wholeness)을 갖고자 노력한다(박아청, 1996).

4)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Anderson 과 Sabatelli (1992)가 가족과정(family process)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결성(connectedness)과 분리성(separateness)의 균형의 정도를 조절해주는 심리적 거리규제(distance regulation)로 정의된다.

결혼생활의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측면에 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정의되는 것과 달리, 부부간의 친밀감(marital intimacy)은 부부간의 깊이있는 관계성을 포착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기에 보다 적절하다.

신혼기는 낯선 두 사람이 서로 공유하며 안정된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 부부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각자의 경험을 재확립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Berger & Keller, 1980). 특히, 이 시기에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데 있어서 실패한 성인 자녀는 부모와 심한 갈등을 겪고, 부부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Hoffman & Weiss, 1987). 반면에,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 자녀는 원가족과 갈등이 적으며, 스트레스 발생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개인 내적 통제를 잘 하였다. 부부관계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 연구(유은희, 박성연 1989; 진춘애, 박성연, 1994)에서도 현재의 결혼생활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가족을 형성한 후에도 원가족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당시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많은 심리적 불편감을 겪은 성인 자녀는 신혼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부간의 친밀감을 저하시킬 것이다. 성인 자녀들은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양육과 정서적 부양에 대한 빚을 지고 있고, 이는 과거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충성(invisible loyalties)⁵⁾의 형태로 나타

난다(Boszormenyi-Nagy & Sparks, 1973). 이러한 이유로 원가족의 정서적 힘이 결혼한 성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라도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압력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원가족의 부모에게 향하는 성인 자녀의 의무감은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효'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와 성인 자녀간에 심한 심리적 단절로 인하여 서로간에 왕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인 자녀들은 원가족의 부모와 결혼 당시 가졌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즉 성인 자녀가 원가족과 유대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이는 부부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원가족이 성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결혼 전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나 혹은 결혼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인 자녀에 대한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의 종단적 추적이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많은 연구자들이 종단 연구를 기피해온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회고적 내용(personal retrospective)을 토대로 결혼 전, 후 원가족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 전 성인 자녀의 부모와의 분화수준은 결혼으로 인하여

게 가지는 정서적 관여나 의무감으로 정의된다(Boszormenyi-Nagy & Sparks, 1973).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들은 원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심에 대한 딜레마를 잘 다루어주어야 한다.

5) 보이지 않는 충성(invisible loyalties)은 가족구성원이 원가족 또는 그보다 더 여러 세대에 걸쳐 조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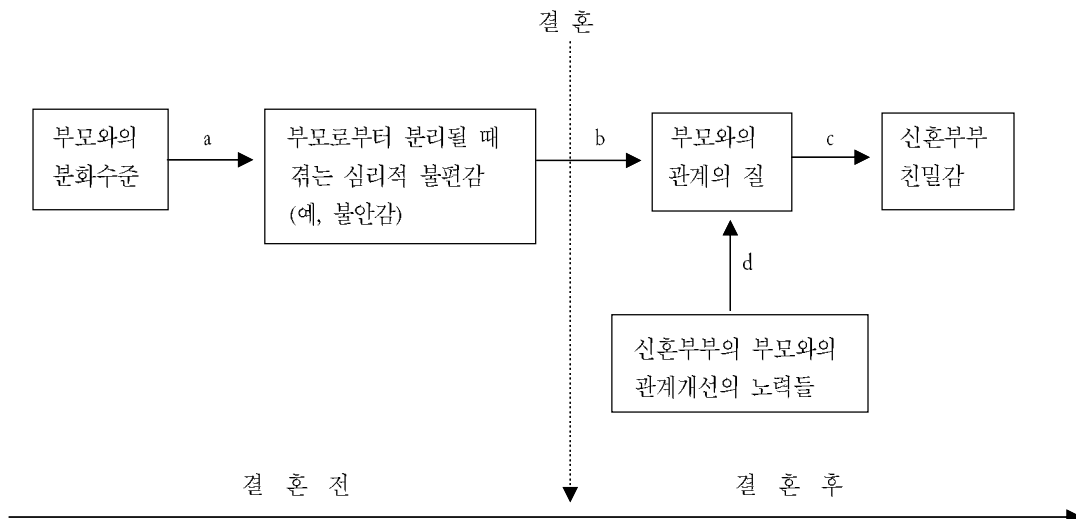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델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초래되는 심리적 불안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a). 둘째, 결혼당시 성인 자녀가 겪었던 부모와의 심리적 불편감은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b). 셋째,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성인 자녀 부부간의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c). 넷째, 신혼 부부들이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정도는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d). 마지막으로, 신혼 부부들이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정도는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d)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c). 즉 신혼 부부들이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신혼부부 188쌍이다. 연구대상자들은 결혼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제한은 가족생활주기에서 신혼기를 결혼 이후 두 성인 남녀만의 시기(Duvall, 1957)로 정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거나 간에 개인적인 사정(예, 불임, 취업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갖지 않는 많은 부부들이 신혼기에서 바로 중년기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결혼한 지 최소한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학교, 교회, 일반기업체에 총 350 세트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배포된 설문지 중 188 세트만이 최종적으로 회수되었다. 신혼 부부들의

표 1. 신혼 부부의 인구통계적 특징

	남 편	아 내
평균 연령		
대 상 자	29.48세(SD= 3.40)	27.57세(SD= 2.44)
아 버 지	56.07세(SD=16.67)	55.10세(SD=14.71)
어 머 니	57.27세(SD= 6.99)	53.66세(SD= 9.65)
교육수준		
대학원졸 이상	34명(18.1%)	23명(12.2%)
대 졸	109명(58.0%)	100명(53.2%)
전문대졸	14명(7.4%)	32명(17.0%)
고 졸	30명(16.0%)	33명(17.6%)
직업		
진 문 직	78명(41.5%)	65명(34.6%)
사 무 직	59명(31.4%)	45명(23.9%)
자 영 업	13명(6.9%)	-
전업주부	-	48명(25.5%)
종교		
기 독 교	80명(42.6%)	88명(46.8%)
불 교	23명(12.2%)	25명(13.3%)
천 주 교	16명(8.5%)	24명(12.8%)
월수입		
150만원 이하	52명(13.8%)	
150-250만원	157명(41.8%)	
250-350만원	114명(30.3%)	
350만원 이상	52명(13.8%)	
평균 결혼지속기간	465.62일(SD=42.59)	
배우자 선택유형		
연 애 혼	321명(85.4%)	
중 매 혼	25명(6.6%)	
절 충 혼	27명(7.2%)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가족분화 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들의 결혼 전 부모와의 가족분화정도를 알기 위해서 Anderson과 Sabatelli(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각 하위척

계별로 11개 문항이 순환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은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를 회고해볼 때, “아버지는 내 견해가 아버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아버지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어머니는 내 견해가 어머니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어머니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에 대해서 각각 응답하여야 한다.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분화점수는 11에서 55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모-나 하위체계에서 .84, 부-나 하위체계에서 .85였고, 아내의 경우에 모-나 하위체계에서 .83, 부-나 하위체계에서 .85였다.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들이 결혼 당시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될 때, 지각하는 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ielberger(1970)의 상태-특성 불안척도 중에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신혼 부부들은 결혼 당시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하여 각 문항에 답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이고,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불안의 총점은 20에서 80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남편의 경우 .75, 아내의 경우 .80였다.

가족관계의 질 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 IFR)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혼부부들과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Hudson, Acklin 및 Bartosh(1980)가 개발한 가족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 질 척도는 원래 “우리 가족은 ~이다”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나 하위체계와 모-나 하위체계로 분석단위를 구분하여 각 문항들을 “아버지와

나는 ~이다”, “어머니와 나는 ~이다”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고,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총점은 25에서 125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부-나 하위체계에서 .84, 모-나 하위체계에서 .75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아내의 경우, 부-나 하위체계에서 .76, 모-나 하위체계에서 .72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관계개선 척도

신혼기 부부들이 원가족의 부모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한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관계개선 척도는 기혼 부부 20명과 연구자와의 면대면 면담을 통하여 주로 기혼 부부들이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유목화한 것으로 안부전화, 생신 챙기기, 부모의 건강염려, 가족행사 참여 및 가족문제 상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부부들의 자유반응형 문항들을 Likert식 5점 척도 양적 측정문항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총점은 10에서 50이다. 본 연구에서 관계개선 척도는 남편의 경우 .83, 아내의 경우 .85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부부 친밀감 척도(Marital Intimacy Scale)

본 연구에서는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경희(1998)가 제작한 부부 친밀감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친밀감(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에 관한 5문항, 정서적 친밀감(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에 관한 5문항, 성적 친밀감(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관한 5문항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본 척도에서 받을 수 있는 총점은 15에서 75이다. 본 연구에서 신혼 부부들은 부부 친밀감에 대하여 남편, 아내 모두에서 각각 .75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연구결과

연구가설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4.0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fit measure)는 일반 부합치(goodness of fit; GFI), 조정 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AGFI),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원소간 근접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함께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형의 부합도 지수로 자주 사용되어 온 카이 자승치(chi-square)를 사용하지 않았다. 카이 자승치를 사용할 경우 대규모 표본 조사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로도 “모형이 자료구조와 적합하다”라는 영가설(H_0)을 기각할 가능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형부합도 지수로 카이 자승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Cochran, 1952; Browne & Mels, 1992).

다음은 경로 모형의 부합도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보고, 개별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수준을 통해 각 변인들이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예측해 본 것이다. 남편의 부-나 하위체계와 모-나 하위체계 결과는 각각 그림 2, 3에 제시되었고,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2, 3과 같이 산출되었다. 아내의 부-나 하위체계와 모-나 하위체계 결과는 각각 그림 4, 5에 제시되었고,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4, 5와 같이 산출되었다.

그림 2는 남편의 경우 원가족의 부와의 결혼 전과 결혼 후 관계가 신혼초기 부부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각 변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의 개별계수와 각각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우 결혼 전에 아버지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데 있어서 덜 불안 수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8, p < .05$. 결혼 당시 남편의 불안수준은 결혼 후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3, p < .05$, 결혼 후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의 질은 신혼 부부의 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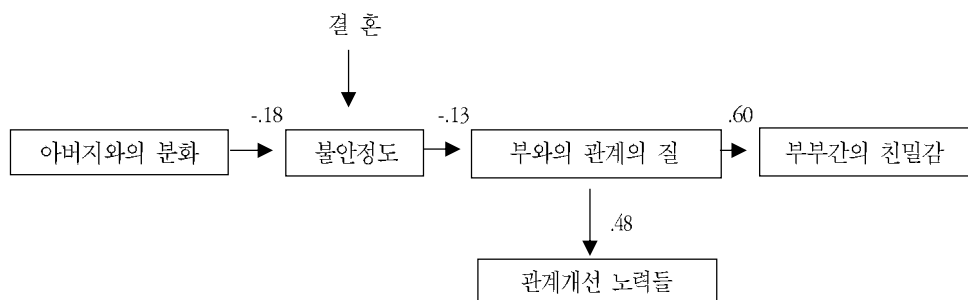


그림 2. 남편의 부-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모형 검증(모든 경로계수, $p < .05$)

표 2. 남편의 부-나 하위체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9	.93	33.72	.08	.99

미쳤다, $\beta=.60, p<.01$. 또한 핵가족을 형성한 신혼기 남편이 원가족의 부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 후 부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8, p<.01$. 이는 신혼 부부들이 원가족의 부모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혼기 남편이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결혼 후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 부-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 모형은 지지되었다.

표 2는 그림 2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부합도 지수는 GFI가 .99, AGFI가 .93, CFI가 .99, RMR이 33.72, RMSEA가 .08 로 나타났다. GFI, AGFI, CFI는 모두 일반적인 수용준거인 .90 이상이고, 1에 가까워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도 .08로 좋은 적합도 수용 수준인 .05 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양호한 수준인 .08 이하의 범위에 있으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Bentler & Bonett, 1980). 하지만 RMR은 33.72 로 수용 준거인 0.1 수준 이하 범위에 있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측정 단위가 각각 다르고 채점방식 또한 각각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순목, 2000), 모형 적합성 여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남편의 경우 원가족의 모와의 결혼 전과 결혼 후 관계가 신혼초기 부부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각 변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의 개별계수와 각각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우 결혼 전에 어머니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결혼 당시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데 있어서 덜 불안 수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 p<.05$. 결혼 당시 남편의 불안수준은 결혼 후 원가족의 모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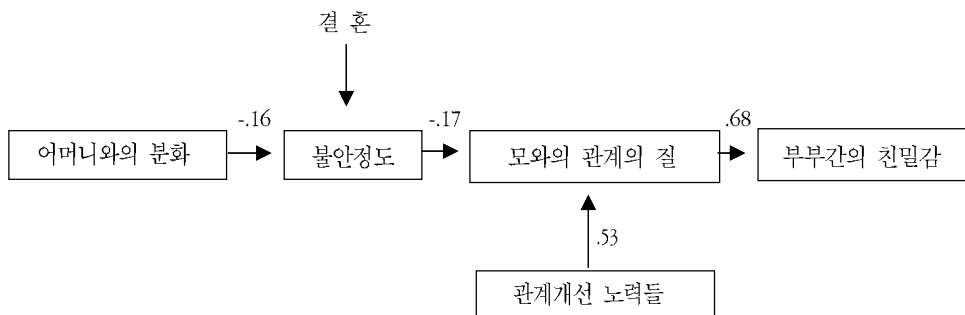


그림 3. 남편의 모-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모형 검증(모든 경로계수, $p<.05$)

표 3. 남편의 모-나 하위체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8	.92	43.20	.09	.98

$\beta=-.17, p<.05$, 결혼 후 원가족의 모와의 관계의 질은 신혼 부부의 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68, p<.01$. 또한 핵가족을 형성한 신혼기 남편이 원가족의 모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 후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3, p<.01$. 즉 남편의 경우 모-나 하위체계에서도 연구가설 모델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신혼기 남편이 원가족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결혼 후 원가족의 모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3은 그림 3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부합도 지수는 GFI가 .98, AGFI가 .92, CFI가 .98, RMR이 43.20, RMSEA가 .09 로 나타났다. GFI, AGFI, CFI는 모두 일반적인 수용준거인 .90 이상이고, 1에 가까워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는 .09 로 좋은 적합도 수용 수준인 .05 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09 이하

로 수용준거인 0.1 수준 이하에 속한다(Bentler & Bonett, 1980). 하지만 RMR은 43.20 으로 수용 준거인 0.1 수준 이하 범위에 있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측정 단위가 각각 다르고 채점방식 또한 각각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이순목, 2000), 모형 적합성 여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아내의 경우 원가족의 부와의 결혼 전과 결혼 후 관계가 신혼초기 부부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각 변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의 개별계수와 각각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아내의 경우 결혼 전에 아버지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데 있어서 덜 불안 수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 p<.01$. 결혼 당시 아내의 불안수준은 결혼 후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beta=-.19, p<.05$, 결혼 후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의 질은 신혼 부부의 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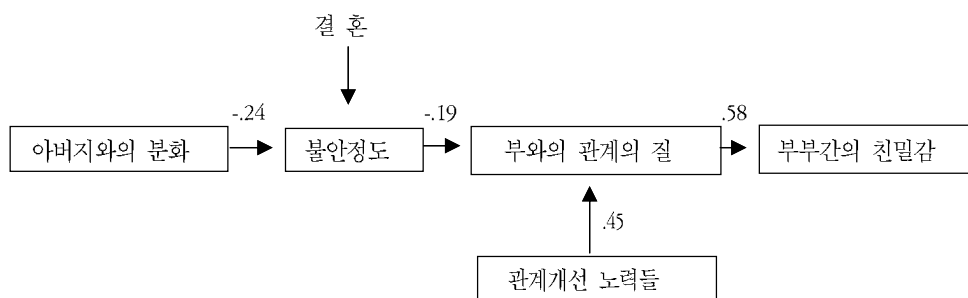


그림 4. 아내의 부-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모형 검증(모든 경로계수, $p<.05$)

표 4. 아내의 부나 하위체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9	.93	41.92	.09	.98

미쳤다, $\beta=.58, p<.01$. 또한 핵가족을 형성한 신혼기 아내가 원가족의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 후 부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 p<.01$. 그리고 신혼기 아내가 원가족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결혼 후 원가족의 부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아내의 경우 부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 모형은 지지되었다.

표 4는 그림 4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부합도 지수는 GFI가 .99, AGFI가 .93, CFI가 .98, RMR이 41.92, RMSEA가 .09 로 나타났다. GFI, AGFI, CFI는 모두 일반적인 수용준거인 .90 이상이고, 1에 가까워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는 .09 로 좋은 적합도 수용 수준인 .05 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09 이하의 범위에 있으므로 수용준거인 0.1 수준에 속한다(Bentler & Bonett, 1980). 하지만 RMR은 41.92

로 수용 준거인 0.1 수준 이하 범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측정 단위가 각각 다르고 채점방식 또한 각각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이순목, 2000), 모형 적합성 여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아내의 경우 원가족의 모와의 결혼 전과 결혼 후 관계가 신혼초기 부부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각 변인들에 대한 경로모형의 개별계수와 각각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아내의 경우 결혼 전에 어머니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결혼 당시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데 있어서 덜 불안 수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4, p<.01$. 결혼 당시 아내의 불안수준은 결혼 후 원가족의 모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eta=-.11, p<.05$, 결혼 후 원가족의 모와의 관계의 질은 신혼 부부의 친밀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54, p<.01$. 또한 핵가족을 형성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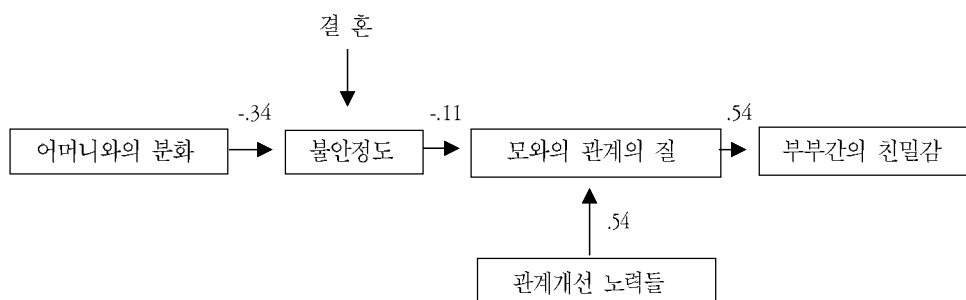


그림 5. 아내의 모-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모형 검증(모든 경로계수, $p<.05$)

표 5. 아내의 모나 하위체계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9	.93	51.32	.08	.99

혼기 아내가 원가족의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 후 모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4, p<.01$. 그리고 신혼기 아내가 원가족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신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때, 결혼 후 원가족의 모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아내의 경우 모나 하위체계에서도 연구가설 모델은 지지되었다.

표 5는 그림 5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부합도 지수는 GFI가 .99, AGFI가 .93, CFI가 .99, RMR이 51.32, RMSEA가 .08 로 나타났다. GFI, AGFI, CFI는 모두 일반적인 수용준거인 .90 이상이고, 1에 가까워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RMSEA는 .08 로 좋은 적합도 수용 수준인 .05 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양호한 수준인 .08 이하의 범위에 있으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Bentler & Bonett, 1980). 하지만 RMR은 51.32 로 수용 준거인 0.1 수준 이하 범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측정 단위가 각각 다르고 채점방식 또한 각각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이순목, 2000), 모형 적합성 여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 행동에 대한 원가

족의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순현, 한성열, 2001; 유은희, 박성연, 1989; 전춘애, 박성연, 1994;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Gavin & Wamboldt, 1992). 특히 가족상담과 치료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은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문제를 해석하고 치료하는데 보다 더 강조되어 왔다. 반면, 각 개인의 건강한 정서와 인성발달 및 가족의 안정성과 기능성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가족 연구들이 가족의 건강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원가족이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적응 및 성인 자녀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게 되었고, 연구자들은 원가족의 기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순현, 한성열, 2001; 유은희, 박성연, 1989; 전춘애, 박성연, 1994;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Gavin & Wamboldt, 1992).

본 연구에서는 신혼 부부들이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 결혼 당시 부모와의 관계 및 결혼 후 현재 부모와의 관계와 부부 친밀감을 회고한 내용들을 토대로 원가족이 성인 자녀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신혼 부부들의 결혼 전부터 결혼 후 까지 원가족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model)을 사용하였다. 경로모형의 부합도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부나 하위체계와 모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개별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도 수준을 통해서 각 변인들이 신혼 부부의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을 예측한 결과는 그림 2, 3, 4, 5와 같았고, 가설적 인과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표 2, 3, 4, 5와 같이 산출되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부나 하위체계와 모나 하위체계에서 연구가설모델은 지지되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전에 부모와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인 사람은 결혼 당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데 있어서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당시 이러한 불안감은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혼 후 원가족과의 관계의 질은 부부간의 친밀감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한편, 결혼 당시 지각되었던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노력은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또한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냈다. 즉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이 각 가족구성원들을 포함시키고 개별화시키는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였는가에 따라 개인의 자율성과 친밀감 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부부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원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는 한국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원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와 생식가족의 자율성 유지의 균형이라는 과제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Guerin, Fay, Burden, 및 Kautto(1987)는 결혼 전 개인이 원가족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부모와의 삼각화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각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도와 부부갈등을 진단하는데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다. 연구가설모델을 검증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상황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정체감 형성을 저해하고, 이는 결혼시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족형성을 위해서도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즉 각 배우자의 정서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긴장을 덜 느끼며, 부부간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서 재현하기 쉽다. 따라서 세대간(intergenerational) 가족치료 이론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과의 관계개선과 친밀한 관계형성이라는 점에서, 한국 가족의 실정에 잘 들어맞는다. 또한 서구와 달리, 한국의 문화적 상황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성보다는 부모와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할지라도, 한 개인의 발달과 가족생활주기에서 구성원들간의 자율성과 친밀성간의 적절한 균형은 중요하다(남순현, 한성열, 1999; 2001).

아울러 전 세대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무가 있을 경우 원가족은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압력을 강하게 된다. 성인 자녀는 원가족에 대한 충성심으로 원가족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원가족과 정서적 차단이 되는 경우 모두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과 병적인 의무감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원가족과의 극단적인 밀착이나 혹은 지나친 이탈을 형성하게 한다(Kramer, 1985). 반면에 자율적인 사람은 만족스러운 정체감의 형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지나친 의존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혼 부부들은 결혼

초기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형성하고, 각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요구를 들어주고, 삼각화, 융합 및 이탈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결혼한 성인 자녀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원가족과 유사한 주제(theme)와 문제영역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하나의 연계성을 제공받음으로서, 자신의 행동의 뿌리와 문제를 깨닫고 원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혼 당시 겪었던 심리적 위기를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만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심리적 독립을 하게 될 수 있다. 신혼기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신혼기에 형성된 확대가족과의 관계는 중년기 이후 노년 가족에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성인 자녀가 원가족과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들은 중년 이후 가족에서 그 자녀에게로 되물려지는 악순환적인 고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혼기의 발달과제 달성은 가족생활주기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가설적 인과모형을 검증해봄으로서 성인 자녀의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는 장점을 지닌다. 둘째, 성인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해 봄으로서, 결혼 당시 부모와 성인 자녀간에 겪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밝혀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 가족에게 미치는 원가족의 건강성을 강조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건강한 가족의 출발은 건강한 성인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부간 친밀감에 가장 영

향력을 미치는 원가족의 특성이 중요하다. 즉 가족구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라는 점에서 가족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 정립이 시급하다. 가족문화란 가족구성원간의 공동의 활동과 공동의 취미와 관심을 통해 이룩된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간에 가치체계가 공유된다는 것은 가족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가족가치관과 가족문화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과도기적 문화정체성 및 혼돈과 심지어 부재까지 의심하게 되는 가족문화는 개인의 적응과 가족관계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요인이다. 가족문화 형성과 발달을 위하여 건강한 가족과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이룩되어야 할 중대한 분야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미성숙한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적절한 자아정체감 형성에 실패한 성인이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원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고, 원가족 또한 정서적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후에 파생될 수 있는 부부갈등을 예방하고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결혼초기 개인의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원가족과의 정서적 건강이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신혼 부부들의 회고에 기초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신혼 부부가 결혼 전과 후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기억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계수의 크기를 실제보다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혼

전 성인 남녀의 연애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신혼초기 성인기까지의 각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연구가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정서적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정서적 측면 이외에도 가족구성원들의 인지, 행동적 신념체계에서 비롯된 가족신화, 가족의식 및 가족이데올로기와 같은 주관적인 가족사건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 교육, 가정환경과 같은 객관적인 가족사건과 관련된 제반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Spiegel & Wilssler, 1983; 전춘애, 박성연, 1994 재인용), 상호의존적이고 복잡한 가족관계의 본질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성원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보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서적 역동에 대한 측정이 자기보고식 조사방법에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가족은 구성원이 살아숨쉬는 경험의 장이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체계이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법이나 참여관찰법과 같은 연구방법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1), 123-139.
- 김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김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유숙 (2000). 가족상담. 학지사.
- 남순현, 한성열 (1999). 가족분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2), 209-222.
- 남순현, 한성열 (2001).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4), 625-640.
- 박아청 (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9(2), 68-78.
- 유영주 (1995).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유은희,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이순목 (200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전춘애, 박성연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 conceptual and operation challeng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 DIF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rger, P. L., & Keller, H. (1980).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J. M. Henslined (Eds.),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oszormenyi-Nagy, I., & Sparks, G. N. (1973). *Invisible loyalties :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 Aronson.
- Browne, M. W., & Mels, G. (1992). *AMOS User's Guide*. The Ohio State University, Ohio : Columbus.
- Carter, E. A., & McGoldrick, M. (1980). *The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Cochran, W. G. (1952). The χ^2 test of goodness of fit.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New York : Norton.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Garvin, L. A., & Wamboldt, F. S. (1992). A reconsideration of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 2.
- Guerin, P. J., Fay, L. F., Burden, S. L., & Kautto, J. G. (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four-stage approach*. Basic Books.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s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 37-44.
- Hovestadt, J. A., Anderson, T. W., Pierly, P. E., Cochran, W. S., & Fine, M. (1985).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 287-297.
- Hudson, W. W., Acklin, J. D., & Bartosh, J. C. (1980). Assessing discord i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29.
- Kramer, J. R. (1985). Influence of family patterns on marital pattern. In *Family Interfaces : Transgenerational Patterns*. New York : Brunner/Mazel, Publishers.
- Patton, D., & Waring, E. M. (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 3, 201-206.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3. 1. 23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2
게 재 결 정 일 : 2003. 6. 5

The Influence of Family of Origin on Wedded Coupl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Marital Intimacy

Nam, Soonhyeon

Honam University

Han, Seongyeul

Korea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have studied the family of origin's lasting effect on the family making of wedded couples. The path model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f origi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trospection of the stages before and after marriage of 188 newly-wedded couples. The verification of the model shows that the hypothesis holds for both the husband's and wife's lineages.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before marriage, the less anxiety adult children at the time of marriage feel about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The anxiety influences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fter marriage, and also the marital intimacy of the wedded couple. On the other hand, the newly-wedded couples' efforts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discomfort with parents perceived at the time of marriage made better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also influenced marital intimacy.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were found to be the mediator. This study took effect under the basic assumption that a healthy individual forms a healthy family, a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family of origin on grown-up sons and daughters. This suggest implies that the progress of one's development and the psychological progress of the family members during the family life cycle should be investigated longitudinally.

Keywords : Marital Intimacy, Psychological Independence, Emotional Healthy, Healthy Family, Ego-Identity Crisis

부 록

관계개선 척도 (남편용)

	전혀	거의	가끔	자주	항상
1. 나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부모님의 생신을 반드시 챙긴다.	1	2	3	4	5
3. 나는 진심으로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한다.	1	2	3	4	5
4. 나는 본가(친정)의 가족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가족의 어려운 일을 부모님과 상의한다.	1	2	3	4	5
6. 나는 가끔 부모님과 쇼핑을 같이 한다.	1	2	3	4	5
7. 나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는다.	1	2	3	4	5
8. 나는 가능한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한다.	1	2	3	4	5
9.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나는 가끔 부모님과 외식을 한다.	1	2	3	4	5

K C I